

음주운전 사망사고 “한국판 벤틀리법 필요”

교통사고로 보호자 사망 땀 가구소득 '반토막' 보상금 8037만원 그쳐...1년 내 소진 31.3% 美 벤틀리법, 유자녀 고교 졸업때까지 양육비 추진단체 “피해자엔 정의, 가해자엔 책임 부과” 전문가 “음주운전 땀 패가망신 경고 효과도”

지난해 11월 광주 광산구의 한 사거리 보행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대리운전 기사 A(45)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초등학교 두 딸을 둔 A씨는 이날도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 장소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운전자인 B(37)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A씨 가족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차킨 배달에 나섰던 50대 가장이 중앙선을 넘어 만취운전을 하던 벤츠에 치여 사망한 뒤 그의 딸이 양육비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생계문제로 내몰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더 강한 책임을 지

우는 차원에서 형사처벌을 넘어 양육비도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해외에서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국회 임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잃은 당시 만 3세 미만인 경우가 24.2%, 만 3~7세 미만이 35.7%, 초등학교 재학 중이던 경우는 33.8%로 나타났다.

이들 유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가장을 잃기 전 219.9만원에서 사고 이후 100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이 전체의 55.4%에 달했다.

반면 보상금 액수는 턱없이 작은 데다가 그마저도 단기간에 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자녀 보호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평균 보상액은 8037만원에 그쳤고, 대체로 33.4개월 안에 소진한 것으

로 나타났다. 1년 안에 보상금을 모두 쓴 경우도 31.3%에 달했다.

교통사고 사망 유자녀 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지원 범위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자녀에게 분기별로 25~45만원씩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지난해 지급 건수가 초·중·고교 모두 합쳐 786건에 그쳤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에게 미성년 유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테네시주의 경우 이미 '이든·헤일리·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 이른바 벤틀리법이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벤틀리법은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차량사고로 고아가 된 두 손자를 키우게 된 세실리아 윌리엄스가 17개 주를 돌며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한 게 계기가 됐다.

법안은 유자녀가 18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액수는 아동의 경제적 필요와 자원, 생활 수준 등 성장환경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게 했다.

입법 운동을 벌인 음주운전 방지 어머니회(Mothers Against Drunk Driving)는 “벤틀리법 제정이 피해자

와 생존자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고, 가해자에게는 그들의 음주운전이 초래한 참극을 상기시키고 행동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조항을 추가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조항을 손질해 법원이 자녀 양육비 배상을 명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입법조사처의 제안이다.

특히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하게 하는 쪽이 복잡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통해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참극의 형상을 우리사회에 보다 선명하게 각인시켜,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피해 유자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우혁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다른 범죄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따져서 사회적 합의를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음주운전 피해자의 치유, 회복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완도해경, 지휘관 주관 경비함정 승조원과 간담회 개최
완도해경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3일, 6일(2차례) 최일선 경비함정 승조원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승조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여주소방, 봄철 산불 확산 촉각 “10건 중 9건 부주의”
여주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최근 3년간 여주지역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2~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주=김현근기자



담양소방, 봄철 화재예방대책 전격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이번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동부소방, '제한급수 위기 극복' 비상흡수장비보관함 설치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극심한 가뭄에 따른 제한급수 등으로 소방용수 부족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광주천에 비상흡수장비보관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 남부소방,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찾아가는 자율봉사활동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최근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서 찾아가는 자율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해양경찰교육원, 전문성 강화 위한 해양강사 교육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교육원 내 해양구조·응급구조 실습장에서 '해양안전체험관 강사 전문화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檢, 이재명 조만간 재판 넘길 듯...‘은닉 혐의’ 김만배도 곧 기소

김만배 이달 9일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 보강수사 중

대장동 배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김씨를 구속기소할 후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오는 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후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인 20일을 모두 채우게 된다.

김씨는 2021~2022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숨기고,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정보전명령 후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

는다.

김씨는 이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조력한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의 공판에서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9일 안에 김씨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뒤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달 중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김씨가 구속된 사건과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함께 기소하진 않는다. 기소 날짜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겠지만 수사팀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이 대표 기소를 반드시 연동시킬 이유는 없



‘윤석열 굴욕외교 OUT’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최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강계정용 피해배상에 대한 제3차 면제 방안 발표 규탄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자택 압수수색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경찰이 7일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유씨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유씨의 모발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지금까지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류는 대마와 프로포폴까지 포함해 총 4종류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총 73회에 걸쳐 4400㎖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유씨가 지난해까지 총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남부소방,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찾아가는 자율봉사활동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최근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서 찾아가는 자율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해양경찰교육원, 전문성 강화 위한 해양강사 교육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교육원 내 해양구조·응급구조 실습장에서 '해양안전체험관 강사 전문화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